

[P3 - 5]

TV 방송에서 제공된 식품영양정보 모니터링

윤은영, 지선미, 서정숙*, 김경원**, 배현주***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Monitoring of Nutrition Information on TV

Eun Young Yoon, Seon-mi Ji, Jung Sook Seo*, Kyung Won Kim**, Hyeon-Ju Bae***

Dept. of Food & Nutri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Dept. of Food & Nutrition Younghanam University*, Kyungsan, Korea, Dept. of Food & Nutri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Dept. of Food & Nutri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대중매체인 TV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하여 영양정보 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KBS1, KBS2, MBC, SBS의 영양정보 프로그램 중 2003. 11월 - 2004. 4월 까지 제공된 프로그램 104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TV에서 주로 방송된 영양 정보 내용으로는 음식과 조리부분이 가장 많았으며(19.2%) 식품에 대한 건강 기능성을 강조한 내용(16.3%)도 많았다. 질병과 식사요법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14.4%로서 암, 고지혈증, 고혈압, 순환기계질환과 골다공증 등의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비만과 다이어트는 14.4%로 나타났다. 영양이나 식습관, 식사요법, 식생활문화 등은 매우 중요한 영양정보임에도 불구하고, TV 방송의 주요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주기에 따른 영양에 대한 정보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방송국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주제는 웰빙과 관련된 음식 및 식품, 생활습관 등이며 여러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지 않았으며 주제도 중복 설정하였다. 영양정보 프로그램의 주요 시간대 편성은 68.3%가 오전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영양 정보 수혜 대상자가 주부층이었다. TV 영양정보 중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2점 만점 중 평균 1.2이상 받은 항목)은 총 17항목 중 '내용이 흥미있게 구성되었는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이해하기 쉬운가' '로 불과 3항목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흥미있게 구성되었는가'로 나타났다. 영양정보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평균 0.8이하 받은 항목)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내용이 깊이가 있고 전문적인가' '참신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가' '개인적인 이야기나 체험을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영양상담이 가능한가' 5항목이었다. 그 외 식품의 기능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과대 포장하여 마치 식품을 약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영양에 관한 부분을 영양전문가 아닌 의료전문가가 초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영양정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 소비자들도 아는 영양정보를 언급하거나 잘못된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영양관련 정보에서 주제별 내용의 과학적 근거, 새롭고 참신한 정보, 깊이가 있고 전문적인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내용의 명확성, 전문 용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등을 첨부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흥미성과 시청률 위주의 정보제공을 하고 있어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영양전문가에 의해 신뢰성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프로그램이 편일수록이 되기보다는 각 방송 프로그램의 특징과 주제 설정을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